

산업자원부 장관 김영주 국무실장

노무현 대통령 1월4일 내정인사 ... 사회학 전공한 정통 경제관료

노무현 대통령은 1월4일 새 산업자원부 장관에 김영주(57: 행시 17회)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후임 국무조정실장에는 임상규(58: 행시 17회)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기용키로 했다고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김영주 산자장관 내정자는 서울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옛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재정부 차관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경제정책수석 등을 역임했다.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내정자는 광주일고, 서울대 금속학과를 졸업했고 옛 경제기획원에서 출발해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실장, 과기부 차관을 거친 재정 예산 전문가이다.

김영주 산자장관 내정자는 참여정부의 철학 및 정책방향을 꿰뚫고 있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재정부 차관보로 있던 2003년 9월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 정책기획수석, 경제정책수석을 지내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조정했고, 2006년 3월부터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돼 주요 국정현안을 조정해왔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가교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한명숙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꼼꼼하게 보좌해 한명숙 총리체제가 안착하는데 주요 역할을 해왔다.

기획예산처, 재정부 등 경제 부처에서 재정·금융·예산·기획 분야를 두루 거치며 정책기획 및 현안조정 능력을 발휘해 행시 17회 동기들 중 선두주자로 꼽힌다.

또 전체 30년 공직생활 가운데 5년 넘게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각 부처 현안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장을 9개월여 역임해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전반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고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또한 직원들과 매주 1차례 이상 식사를 함께 하고 5부제 실천을 위해 매주 1번씩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소탈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다. 매일 새벽기도를 거르지 않을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부인 김혜인(56) 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서울(57) ▲서울고, 서울대 사회학과, 미국 시카고대 경영학 석사 ▲행시 17회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재정경제부 차관보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경제정책수석 ▲국무조정실장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05>